

신지에 통산 최다 상금 쥐었다

■ KLPGA 인터볼고 마스터즈 우승

6천만원 추가...9억4천222만원 시즌 8승...쉽없는 최다승 행진

한국여자골프의 신기록 제조기 '지존' 신지에(19·하이마트)가 시즌 여덟번째 우승컵을 거머쥐며 한국여자프로골프 통산 상금 1위라는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다.

신지에의 28일 경북 경산의 인터볼고 경산골프장(파73·6천761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인터볼고 마스터즈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쓸어담아 3라운드 합계 9언더파 21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인 2위 최나연(20·SK텔레콤)을 5타차로 따돌리는 완승을 거둔 신지에의 시즌 여덟번째 우승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던 한 시즌 두자릿수 우승도 사정권에 넣었다.

이미 25년이나 묵은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즌 최다승(6승) 기록을 지난 9월에 넘어선 뒤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는 신지에의 앞으로 남은 4개 대회에서 사상 첫 10승 달성이라는 신기원을 예약했다.

우승 상금 6천만원을 보탠 신지에의 또 정일미(35·기아골프)가 갖고 있던 통산 상금 1위(8억8천883만원)를 훌쩍 뛰어넘는 9억4천222만원이라는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정일미가 99개 대회에서 쌓은 기록을 불과 30개 대회만에 돌파한 신지에의 올해 안에 통산 상금 10억원 시대도 열려야 할 태세다. 최종 라운드에서 유난히 강해 역전 우승을 밥먹듯 일궈낸 신지에의 뒷심이 새삼 위력을 떨친 하루였다.

올해 신지에의 최종 라운드에서 평균 68.14타를 기록해 시즌 평균타수 69.76타를 능가했고 특히 우승을 차지한 일곱 차례 대회에서 최종 라운드 평균 타수는 이보다 훨씬 나은 67.28타였다.

안선주(20·하이마트)에 1타 뒤진 2위로 최종 라운드에서 나선 신지에의 페이스와 그린을 한번도 놓치지 않는 빼어난 샷에 퍼팅까지 따라주며 일방적인 경기를 펼쳐 우승을 낚았다. 2라운드 선두였던 안선주는 5.6번홀 연속 보기와 11번홀(파5) 더블보기로 일찌감치 우승 경쟁에서 탈락, 3라운드를 1오버파 74타로 마치고 공동3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형태 금강산 NH농협오픈 우승

북한에서 열린 최초의 골프대회인 SBS코리아인투어 금강산 아나티 NH농협오픈 우승의 영예는 김형태(30·테일러메이드)에게 돌아갔다.

김형태는 28일 북한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아나티 골프코스(파72·7천63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인 신인 방두환(20·클리브랜드)에 2타 앞섰다.

올해 SK텔레콤오픈과 삼성베네트오픈에서 준우승만 두 번 했던 김형태는 이로써 시즌 첫 우승을 누으며 상금 6천만원을 거머쥐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지에가 28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 인터볼고 마스터즈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연못에 뛰어들어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LPGA 제공>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오늘 오후 6시 인천



SK 선발 채병용

두산 선발 임태훈

첫 우승축배냐 기사회생 이냐

SK, 3승 2패...1승만 남아

29일 오후 6시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우완투수 채병용(25·SK)과 임태훈(19·두산)이 선발 마운드 대결을 벌인 다.

채병용은 2연패 뒤 3연승으로 극적인 역전극을 쓰고 있는 SK의 한국시리즈 첫 우승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팔꿈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채병용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평균 자책점 2.84로 두산의 다니엘 리오스(2.07) 다음으로 방어율 부문 2위에 올랐고 11승8패로 프로 데뷔 6년 만에 첫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다.

시속 150km에 가까운 목직한 직구와 안정된 제구력이 장점으로 꼽히고 시즌 후반기에는 뜰쪽날쪽하던 케니 레이번을 대신해 SK의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두산을 상대로 4경기(선발 3경기)에 나와 2승1패, 평균자책점 2.86으로 잘 던졌다.

하지만 고영민(10타수 5안타), 김동주(6타수 2안타), 이대수(7타수 3안타)를 상대로는 어려운 승부를 벌였다.

채병용은 지난 23일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와 5.2 이닝 등

안 홈런 2개 등 안타 7개와 4사구 2개로 6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당시 6회에 두산 타자 김동주와 빈볼 시비를 벌인 뒤 집중력이 흐트러져 쓸쓸히 강판당한 아픔을 되풀이할 심산이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 임태훈은 벼랑 끝에 선 두산이 내민 마지막 카드다.

임태훈이 4차전 영웅인 신인 좌완투수 김광현(SK)처럼 감쪽호투를 펼친 승부를 마지막 7차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임태훈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중간계투 및 마무리로 64차례 등판해 101.1 이닝을 투구해 평균 자책점 2.40, 7승3패1세이브로 맹활약했다. 시속 140km대 후반의 빠른 공과 과감한 몸쪽 승부를 잘하고 신인답지 않게 경기 운영능력이 빼어나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한차례도 선발로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은 마음에 걸린다. 정규시즌에서 대부분 2이닝 안팎을 소화했고 지난 5월11일 대전에서 벌어진 한화 이글스와 경기에서 4이닝을 던진 것이 가장 많은 투구였다.

SK를 상대로 7차례, 13.1 이닝을 투구해 평균 자책점 4.05로 좋지 않았다. 좌타자 박제상(3타수 2안타), 이진영(2타수 1안타)에게 약했고 베테랑 박경완에게도 홈런을 내준 적 있어 조심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월부터 엄지 손가락 부상 4번 밀렸을땐 가슴 아팠죠”

■ 이승엽 귀국 인터뷰

“엄지 손가락 부상을 알았던 것은 3월부터였다.”

부상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즌을 보낸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귀국 땅을 다시 밟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49제에 참석하느라 잠시 귀국했다가 지난 26일 나간 지 8개월만이다.

이승엽은 27일 밤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부인, 아들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

29일에는 인천 문학구장을 찾아 롯데 마린스 시절 은사인 김성근 SK 감독을 찾아 뵙고 한국시리즈도 관람할 계획이다.

이승엽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 시내 한 병원에서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쪽 ‘내측측부 인대’ 재건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26일 퇴원해 서둘러 한국에 들어왔다.

지난 해 10월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 11월에 귀국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재활해야 한다.

이승엽은 3월부터 손가락 부상을 알았지만 몸쪽 공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방할



오랜기간 왼손 부상 사실을 숨긴 채 약전 고투해 오다 최근 수술을 받은 이승엽이 27일 입국,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습스

수가 없었다고 말해 시즌 내내 통증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으로 4번에서 5번, 6번으로 밀려났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팠다”면서 “심적도 중요하지만 찬스 때 잘 해서 수고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듀! 동대문야구장

대학야구 결승 마지막 대회-11월 철거

플레이에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등 평소처럼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기 치고는 조용했다. 경기 직후 간단히 시상식이 열리고 이별을 아쉬

워하는 노래인 ‘작별’이 울려 퍼졌을 뿐이다. 대학야구협회는 당초 원로야구인들을 초청하는 등 추억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실명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문화공원으로 바뀐 동대문운동장의 철거 반대운동을 하면서 마지막 경기를 아쉬워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어려울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체구장이 아직 지어지지 않으면서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시기가 불투명해졌고 야구계와 서울시의 갈등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최희섭 “4주 군사 훈련 다녀오겠습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4번 타자 최희섭(28·사진)이 29일 4주 기본 군사훈련차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에 입소한다. 최희섭은 4주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내달 26일 퇴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서 뛰었던 최희섭은 4강 진출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면서 4주 군사 훈련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보스턴, 월드시리즈 정상 탈환 1승 남아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가 핵타선의 무서운 응집력을 앞세워 3년 만의 월드시리즈 정상 복귀에 1승을 낚았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보스턴은 28일 플로리다주 탬파 쿼스 필드에서 계속된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15안타를 찍시에 퍼부어 내셔널리그 챔피언 콜로라도 로키스를 10-5로 따돌리고 파죽의 3연승을 달렸다.

3년 전 ‘밤비노의 저주’에서 벗어나 86년

만에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보스턴은 이로써 남은 4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통산 7번째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른다. 보스턴은 2차전(2-1)을 제외하고 1차전(13-1)과 3차전에서 앞승을 거두며 다소 싱거운 우승을 눈앞에 뒀다.

보스턴은 특히 2004년 우승을 차지했을 때와 흡사한 행보로 데자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보스턴은 당시 뉴욕 양키스와 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3연패 후 기적 같은 4연승으로 월드시리즈에 오른 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4전 전승으로 물리쳤다.